

# 입체재단법에 의한 ART NOUVEAU 의상 SILHOUETTE의 PATTERN 연구

박 은 희 · 정 흥 숙\*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Patterns of ART NOUVEAU Silhouette by Draping Design

Eun-Hee Park · Heung-Sook Chu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 Ang University\*

### ABSTRACT

The study on the past costume should be done first for the creation of new style or fashion.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o analyze characteristic style in each period. Before the latter of nineteenth century, one must have made the costume by draping design. Because the complicated clothes can be expressed by draping design and it adjusted easier than the flat pattern, the students who study costume and ones who work in apparel design think that the subject, draping design, is even more important than other subject. But there haven't been the studies that analyzed the patterns of Art Nouveau style by draping design in Korea. Art Nouveau style is a certain one that was relatively more changeable than the ones of other peri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about the patterns of Hourglass and S-curve style which represented the Art Nouveau style.

The results of the study summarized as follows.

1. Bodice pattern : In the front, Hourglass silhouette has the princess line for fitting bodice while S-curve silhouette has the wide midriff due to the blousing. There is the yoke in S-curve one. In the pattern of back bodice we can't see the much differences, but Hourglass silhouette is used the princess line like the front one while S-curve is made use of the waist darts for fitting back.

2. Sleeve pattern : Hourglass silhouette is made of two pieces, the upper part and lower part, besides S-curve is consisted of one pieces. The former has the big upper part in order to the emphasis of the shoulder and the tight lower part. The latter is the tight sleeve that is similar to the basic sleeve pattern at present.

3. Skirt pattern : There is partially a gored line in the front skirt in Hourglass silhouette, however S-curve silhouette is consisted of the six pieces gored skirt. At this part, we can also see the fact that s-curve is more complicated than Hourglass silhouette.

4. Others : We can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Hourglass and S-curve pattern easily at the parts of the collar, flounce, wing and so on.

Summing up, the patterns of S-curve style are more expanded than those of Hourglass style for the most part.

Key Word : 아르누보,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S자형 실루엣, 입체재단 디자인  
Art Nouveau, Hourglass silhouette, S-curve silhouette, Draping design

## I. 서 론

복식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각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 그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및 예술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sup>1)</sup>, 인간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매체로서 그 시대정신의 척도가 되어 왔다. 최근 급변하는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의 패션을 예측할 뿐 아니라 공연예술의 의상 및 디자인 창작을 위해서, 서양 복식사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금도 서양 복식사에 관한 연구는 문헌·사진·회화·벽화·필름 등을 이용하여 시대별, 품목별, 예술양식사 및 미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초기의 입체의상은 BC 1600년경 크리트에 있는 Knossos 궁전의 여러 여신상이 착용하고 있는 의상으로 사려되는데 이는 허리를 belt로 조이고 bell 모양의 long skirt를 입고 있어 그 당시 어느 나라와도 비교 될 수 없을 만큼 독자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당시 의복의 재단법에 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평면적

의상 구성에서 입체적 구성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중세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의 의상은 형묘한 장을 몸에 감는 drapery 형태에서 점차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예를 들면 cotte나 surcot)로 변화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복형태는 더욱 더 발전하여 collar가 생겨났을 뿐 아니라 high waist의 robe등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16C), 바로크(17C), 로코코(18C)를 거쳐오면서 의복은 점차로 호화스럽게 변화하였고, 이 시대의 의복들은 인체 위에서 혹은 dress form등을 이용하여 조형되어, 지금의 입체재단 구성 방법<sup>2)</sup>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flat pattern은 18C 말 인체의 해부학이 개발되고 이를 힌트로 양복의 산출 제도법이 영국에서 발표되어 미국에서 실용화되어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가로와 세로의 이원 표시밖에 안 되는 평면제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적합도가 낮아 보정이 불가피하다. 평면제도로 만들어진 패턴은 입체적인 의복으로 만들어 졌을 때 천의 율 방향의 흐름이나 양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시각

1)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1993, p.15

2) 입체재단법이란 dress form에 muslin을 대고 편과 가위를 이용하여 직접 pattern을 제작하는 것이다. 박은희, 입체 재단법에 의한 bodice 요인구조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4.

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계산된 식을 암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sup>3)</sup>

입체 재단법은 인체의 특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지는 재단법일 뿐만 아니라, 치수에만 의존하는 flat pattern으로는 표출되기 어려운 디자인의 패턴도 쉽게 제작 할 수 있어 능률적이고 기능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 방법은 의상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의 감각을 빠르게, 자유롭게, 정확하게 표출·전달할 수 있는 방법<sup>4)</sup>으로 3차원의 창조적 디자인의 구성을 배우는 학생들 및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학습 과정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김효은의 연구<sup>5)</sup>결과에 따르면 의복 구성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중요 전공 과목으로는 '창작의상', '입체재단', '의복구성원리', '어패럴 CAD', '평면 패턴 제작'의 순으로 나타나 평면재단 보다는 입체재단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97년도와 98년도의 학생선호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입체 재단이 13.2%에서 25%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의류산업체 근무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의복구성원리', '입체디자인', '평면패턴디자인', '어패럴CAD', '패턴 그레이딩' 순의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어 학교 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입체재단이 중요한 과목으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디자이너 모집에 있어서 fashion illustration과 draping design의 능력은 실력평가에 기준이 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해 입체재단을 활용한 연구로는 basic pattern 제작을 위한 인체계측<sup>6)</sup>영역에 국한되어 있

고 국내에서의 실물제작에 관한 연구 중 입체재단을 이용하여 그 과정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물론 실물 복원(rehabilitation) 과정을 통한 특정 스타일의 연구가 발표<sup>7)8)9)</sup>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의 의상을 중심으로, 문헌상의 간접적인 연구와 Janet Arnold의 「Patterns of Fashion I, II」에 기초를 두어 이미 제시된 flat pattern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복식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시도해 보지 않은 입체재단법을 이용하여 복식 사상, 한 예술 양식 중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 Art Nouveau style을 선정, 실물 자료를 근거로 하는 2가지의 대표적인 silhouette인 Hourglass silhouette과 S-curve silhouette을 실물 제작하였으며,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설명하였고, 이에 따른 패턴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영화, 연극 그리고 오페라와 같이 시대적 배경에 따른 의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공연예술 의상 제작을 위해 Art Nouveau style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의상 실루엣의 패턴을 제시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시대 변화에 따른 패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실물이 남아 있지 않고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접할 수 있는 고대, 중세, 근세 등의 복식들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어 패턴이나 봉제방법, 착장 방법 및 세부 요소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창작의상은 물론 현대 의상의 창조적 디자인의 motive로서의 역할과 문화산업을 위한 의상제작에 활력소가 되며,

3) 이영란, 입체재단, 교학연구사, 1997, p.8.

4) Hide Jaffe & Nurie Relis, Draping for Design, FIT, 1973, p.2.

5) 김효은, 전문대학 패션 디자인과의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복식 46, 1999, p.104.

6) 윤진경·홍정미, 입체재단에 의한 성인여성의 체간부 분석, 복식, 42호, 1999. 2

7) 김문숙,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연구, 복식 27, 1996. 2

8) 김문숙,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연구, 복식 29, 1996. 8

9) 김문숙,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연구(II), 복식 22, 1994. 5

공연 예술가들의 올바른 의상 선택 및 제작발전에 도움이 되어 복식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Art Nouveau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

19세기 유럽은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다. 고전주의는 점차 쇠퇴하고 낭만주의가 그 영역을 넓혀 감에 따라 그 양식은 문학, 예술,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낭만주의가 지나친 감상주의에 빠지게 됨에 따라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연주의로 그 맥을 이어가게 된다<sup>10)</sup>. 서양 복식사에서 이 시기는 근대 복식에서 현대 복식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 하나로 그 특징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다. 이 변화의 추진력은 산업 혁명·정치혁명·정신혁명으로, 산업혁명은 직물의 과학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정치혁명은 복식생활에 민주화와 대중화를 가져오게 되었다<sup>11)</sup>.

19C 말 직물의 기술적인 혁신, 합성섬유와 합성 염료의 발달을 통해 의류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Art Nouveau 양식이다.

Art Nouveau란 art에 nouveau 즉 new가 합쳐진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으로, 산업 혁명과 과학 혁명으로 인한 기계 생산품을 거부했던 운동이었다<sup>12)</sup>. 이 운동은 영국의 William Morris(1834-1896)의 미술 공예 운동(Art & Crafts Movement)을 시조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일어난 새로운 예술 양식이며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그 전성기를

누리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각 나라에서 독자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1890년대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국가간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됨에 따라 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로 표출된 이 운동은 로코코(Rococo) 양식 이후 전 유럽을 지배한 예술 운동의 하나이다. 이 운동은 사실주의와 실증주의를 배격하고, 상징주의를 바탕으로 표현주의적 기법과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는 자연주의적 접근 방식, 인상주의의 부드럽고 환상적인 파스텔 색조로 이국적인 면을 보여준 스타일로 Modernism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이 예술 양식의 특징은 직선을 피하고, 생동적이며 율동적인 가는 S자나 C자의 곡선을 통하여 여성의 신비로움을 나타내는데 있었으며, 외면에서 보여지는 표현보다는 내재하고 있는 실재와 실체(reality)를 추상적이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물고기, 여인, 불꽃, 나무줄기, 꽃 등 자연에서 그 소재를 찾아 단순화시키면서, 평면적으로 활기 있게, 그리고 비대칭적(asymmetric)으로 표현하였다. 그 예를 보면, 꿈틀거리는 듯한 포도 넝쿨, 바람에 흔들리는 여인의 머리, 유연하게 춤추는 듯한 물고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불꽃, 격렬한 채찍 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로 장식 분야에만 쓰이다가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건축의 외관과 실내장식, 금속 공예품, 가구, 그릇, 벽지, 직물, 보석, 의상, 책 표지, 포스터 등의 인쇄물 등 생활 미술 전반에 나타난 통일된 종합 양식으로 발전되었다<sup>13)</sup>.

Art Nouveau양식은 기존의 예술 개념인 응용예술과 순수예술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예술의 상호 교류 융합 등을 중시하여 후에 공업주의와 예술을 접목시켜 예술의 민주화, 생활화를 추

10) 정홍숙, op. cit., p.28

11)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교문사, 1998, p.337

12) Ibid., p.340

13) Ibid., p.331

구했던 Art Deco style뿐 아니라 그 이후 1940-1950년의 예술 및 의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 III. Art Nouveau 복식의 Silhouette

19세기는 재봉틀의 발명으로 인한 봉제 기술의 발달과 Viscose Rayon, 인조섬유 및 합성 염료의 발명으로 직물 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시기이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복식 또한 목적·장소 등에 따라 일상복, 사교복, 운동복 등 여러 형태로 뚜렷해졌는데, 특히 산업 혁명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은 복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르누보 이전에 유행했던 Bustle style이 레이스, 리본, 꽃 등을 과도하게 사용 한 것에 비해, 아르누보 스타일은 실용적이고 간편한 양식을 취함으로써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때부터 현대복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르누보 의상 style은 크게 Hourglass silhouette과 S-curve silhouette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silhouette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Hourglass silhouette(1890-1900)

이 silhouette은 1890년부터 1900년경까지 유행했던 스타일로 Bustle style<sup>14)</sup>의 심한 곡선을 부드럽게 나타낸 형태이다. 이 스타일의 특징은 몸통부터 허리선까지 코르셋으로 가늘고 날씬하게 표현하면서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버슬의 심한 부풀림과는 달리 허리선에서 hip선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silhouette에 있다. Bodice의 곡선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프란세스 라인의 의복 구성이 되어야만 했

고, 이에 따라 의복 구성 기술은 현저하게 진보하였다. 스커트는 밑단 쪽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위해 gored skirt가 고안되었으며, 허리선부터 바닥까지는 flared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자연스런 곡선은 과도하게 부풀렸던 페티코트를 단순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sup>15)</sup>.

1890년 중반에 이르러 강조의 초점이 어깨로 이동함에 따라 소매를 강조하기 시작하여 심하게 곡선을 이룬 큰소매 즉 leg of mutton sleeve<sup>16)</sup>나 두겹의 puff sleeve, flounce를 층층이 붙인 소매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낮에는 high neck에 긴소매 형태의 드레스를 주로 착용하였고, 저녁엔 목선이 V字形이나 bateau neck line의 깊게 파인 짧은 소매의 dress를 많이 입었다. 1897년경 hourglass의 부풀린 커다란 소매가 좁은 소매(slim sleeve)형태로 변화하면서 초점이 hip으로 옮겨 S字形의 silhouette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2. S-curve silhouette(1900-1910)

이 형태는 1900년경부터 1910년까지 유행했던 스타일로 특수한 코르셋에 의해 가슴을 새처럼 나오게 하고, 허리는 가늘게 조였으며, hip은 튀어나오게 하고, 스커트는 트럼펫처럼 퍼지게 하여 옆으로 보았을 때 S字形을 이룬 형태를 말한다<sup>17)</sup>.

S-curve style을 위한 코르셋은 프랑스의 샤르뜨 부인(Madam de Gache Sarraute)이 고안해 낸 건강 코르셋(health corset)으로 배 부위에 직선의 basque를 대어 가슴에서 배 부위까지 납작하게 하고 가슴을 떠받쳐 강조하였다. 앞의 허리선은 아래로 뾰족하게 곡선으로 나타내어 더욱 가늘어 보이

14) 힙 부분에 pad를 장착시키거나 스커트를 뒤로 묶어 스커트의 뒷부분을 강조한 스타일로, 크리놀린 스타일이 쇠퇴하기 시작한 19세기말에 유행하였다.

15) Wilcox, The Mode in Costume, pp. 345-346.

16) 소매의 모양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부풀리고 그 아래쪽은 꼭 맞게 디자인 된 형태.

17) 이정옥 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5, p.327

게 하였고,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유행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sup>18)</sup>.

이 형태는 미국인 화가 Charles Dana Gibson (1863-1945)이 즐겨 그린 의상 style이라 하여 "Gibson girl silhouette"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로 실루엣은 직선의 형태를 만들려는 경향을 띄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Art Nouveau style에 이어지는 Art Deco style 형성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S-curve 스커트는 곡선의 유연함과 울동감을 더해 주기 위해 길이가 더욱 길어 바닥에 끌렸으며 걸을 땐 치맛자락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소매는 bishop이나 pouch sleeve<sup>19)</sup>, set-in sleeve, 혹은 팔 길이의 ¾은 맞고 팔꿈치부터는 레이스나 러플이 달리는 소매 모양이 유행하였다. 이 소매는 일본 문화가 패션계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Kimono sleeve로 이어지게 된다<sup>20)</sup>.

목선은 high neck로 폭 3인치 정도의 velvet band를 목에 두르고 브로우치나 버클을 채우기도 하였는데 이는 알렉산드라 공주가 유행시킨 보석으로 만든 dog-collar 목걸이<sup>21)</sup>에서 유래된 것이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였고 이로 인해 남성복에서 디자인을 딴 tailored suit 차림이 대중화되었는데, 이 옷은 원피스 드레스보다 기능적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으며 스포츠 웨어 뿐 아니라 일상복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또 안에 받쳐입는 블라우스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남성복과 유사한 형태의 투피스 수트도 역시 S자형태를 유지하고 있다<sup>22)</sup>.

#### IV. 제작 과정

#### 1. 연구 방법

Size 6의 dress form(허리둘레 58cm, 가슴둘레 83cm, 등길이 39cm, 엉덩이둘레 85.5cm)을 이용한 입체 재단법으로 draping하여 muslin으로 완성된 것을 dress form에서 떼어낸 후 이를 평면 전개하여 완성선을 따라 자른다. 완성된 pattern의 형태를 분석하고 실물제작용 소재에 식서 방향을 맞추어 재단, 봉제, 완성하여 정면, 측면, 후면의 실루엣을 살펴 보았다.

#### 2. 연구 소재

Draping 용 소재는 hourglass silhouette은 플기를 모두 제거한 약간 두꺼운 소재의 muslin을, S-curve silhouette은 레이스의 효과를 내기 위해 얇은 muslin을 선택하였다. 실물 제작용 소재는 hourglass silhouette의 경우 검정 폴리에스테르 기모 직물 위에 금색의 꽃무늬가 프린트 된 것이며, 소매의 러플 장식은 검정 노방으로, 앞가슴 부분과 스커트의 파이핑은 금색의 공단으로 하였다. S-curve silhouette의 소재는 아이보리색 꽃무늬가 수로 장식되어 있는 얇은 검정 폴리에스테르이며, 요오코 부분은 검정 노방으로 선정하였다.

#### 3. 자료분석 및 디자인 설정

##### (1) Hourglass silhouette

본 연구의 hourglass silhouette의 기초가 된 자료는 J. P. Worth의 이브닝 드레스 <사진 1>로 이 의상은 앞 뒤 목선이 깊게 파이고 가슴에는 삼각형의 드레이프가 있으며 허리선을 그대로 살리고 날씬하

18) 정홍숙, op. cit., p.348

19) 팔의 상단 부분은 꼭 맞고, 손목 쪽으로 내려갈 수록 넓어지는 형태

20) J. Anderson Black (김진구 역), A History of Fashion(세계패션사 2), 자작아카데미, 1997, p.162

21) Ibid., p.158

22) 정홍숙, op. cit., pp.346-347

게 보이기 위해 허리선을 뾰족한 형태로 표현한 뒤 트임의 원피스이다. 소매 및 드레이프 부분과 몸판 부분의 연결에는 날개의 효과를 내는 wing날개 모양의 장식이 있으며, 소매는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는 과장되게 부풀려 어깨를 강조, 러플로 장식되어 있다. 스커트의 경우엔 앞판은 비대칭의 선이 있는 고어드 스커트 형태이며 뒤는 허리 부분에 개더가 있고, 트레인이 길게 늘어진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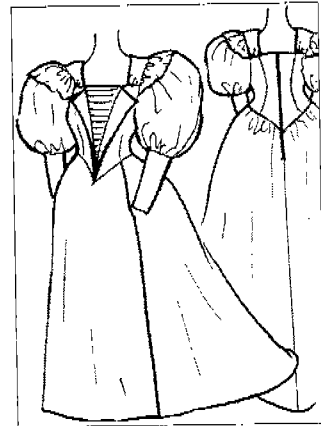
<사진1> J. P. Worth, evening dress(1894)  
 자료출처: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341

본 연구자는 자료의 실루엣이 변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 세부사항만 변형하여 의상을 제작하였는데, 앞가슴의 삼각형 부분에 있는 불규칙적인 드레이프를 규칙적인 주름으로 변형하였으며, 소매는 진동들레 부분이 넉넉한 긴소매로 바꾸었는데 이는 <사진 2>를 근거로 하였다. 그 형태는 소매의 상단 부분에는 충분한 주름을 잡아 부풀리고 팔꿈치 아래는 꼭 맞는 leg of mutton sleeve 모양이다. 몸 판의 앞과 뒤는 실물자료와 동일하게 프린세스 라인으로 상체를 꼭 맞게 하였으며, 뒤 트임은 목선부터 엉덩이 선까지로 정하고, 스커트의 길이는 기초자료와 동일하게 앞은 땅에 닿을 정도로, 뒤는 그리 길지 않은 트레인이 늘어지게 구성하였다. 비대칭의 효과를 준 앞 스커트(착용 시 왼쪽)의 절개선에 있는 긴 삼각형 부분은 파이핑으로 대체시켜 비대칭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앞은 허



<사진 2> Art Nouveau style의 dress(1894)  
 자료출처: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341

리에서 밑단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퍼지는 실루엣이고, 뒤 스커트는 허리에 개더를 잡아 엉덩이를 강조하였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그림 1] 설정한 Hourglass silhouette



[그림 2] 설정한 Hourglass silhouette의 도식화

(2) S-curve silhouette

<사진 3>의 드레스는 모두 high neck에 band collar가 달려있고 앞 허리선은 아래로 쳐져있으며 앞 몸판에는 요크가 있다. 소매는 tight sleeve 형태이고, 스커트는 앞은 납작하고 뒤는 부풀려 옆에서 보았을 때 S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bell 모양의 실루엣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이 두 의상을 혼합하였는데 좌측 드레스의 상의 부분과 우측 드레스의 스커트를 접목시켰으며, Hourglass silhouett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실루엣을 유지하는 범주 내에서 일부 세부사항만을 변형하였다. 본 자료는 다른 일반 복식자료와 마찬가지로 뒷모습이 없어 전체적인 실루엣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의 디자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스커트의 경우 봉제선이 명확하지 않아 좀더 구체적인 스커트의 구성을 위해 <사진 4>의 스커트 장식선을 참고로 하여 선정·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스타일을 좀더 살펴보면 <사진 3과 4>에서처럼 neck에 high collar가 있는 뒤틀임의 원피스형 드레스로, bodice의 앞과 뒤에는 요크가 있고, S-curve silhouette의 특징인 부드러운 곡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크를 따라 flounce를 부착하였다. S-curve silhouette의 또 다른 특징인 앞 허리선은 기본 허리선보다 아래로 둥글게 쳐져 있으며, 상의(上衣) 앞을 풍성하게 연출하기 위해 앞 중심에 맞추음을



<사진 3> J.Huh : Paris Mode 200,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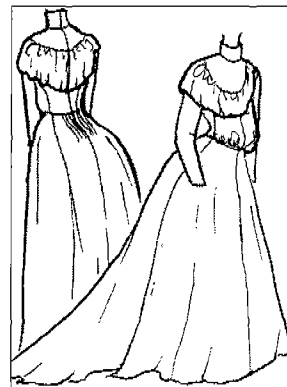
자료출처 : 정홍숙, 근대복식 문화사, 교문사, 1993, p156



<사진 4> 1905년 Queen Alexand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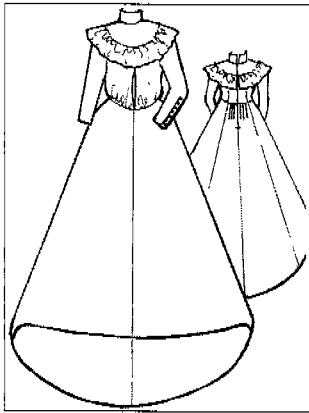
자료출처: E.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7.

잡았고, 앞 bodice의 허리선에 개더를 잡아 부풀리는 효과를 더욱 강조하였다. 뒤 허리선은 기본 허리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허리 다이어트를 좌우 각각 1개씩을 넣어 몸에 꼭 맞는 형태로 구성하여 측면에서 보았을 때 S자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사진 4>의 스커트 장식선을 근거로 하여 스커트의 앞은 2쪽, 뒤는 4쪽의 고어드로 구성하였으며, 허리선에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퍼지는 bell 형태를 유지하고, 뒤 중심선을 기준으로 맞추음을 3개씩 잡아 엉덩이를 강조하였다. 스커트의 길이는 <사진 3>의 좌측 드레스처럼 앞은 땅에 닿을 정도이고, 뒤는 트레인을 길게 하여 바닥에 충분히 끌리게 하였으며, 소매는 소매산 부분에 약간의 잔주름이 있는 tight sleeve로 꼭 맞게(fitted) 구성하였다([그림 3]과 [그림 4] 참조).



[그림 3] 설정한 S-curve silhoue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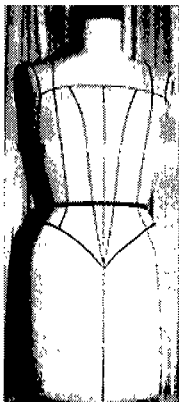


[그림 4] 설정한 S-curve silhouette의 도식화

4. 진행 과정

(1) Hourglass silhouette

① 기준선을 <사진 5>와 같이 라인 테이프로 정하는데 먼저 앞 뒤 bodice 길이를 결정하는 가로선을 가슴에 붙이고, 주름 부분이 있는 스토마커 부분의 삼각형 모양과 bodice 앞 뒤 프린세스 라인을 좌우 한 개씩 표시한다. 진동 들레는 부풀린 소매 디자인을 위해 armhole 들레를 깊게 정하고, 허리를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스커트와 연결선(허리선)을 앞 뒤 모두 뾰족한 모양으로 기준선을 잡는다.



<사진 5> Hourglass S.<sup>23)</sup>의 기준선

② 앞 bodice stomacher 부분의 드레이프를 만든

다. 이 때 자연스러운 주름모양을 위해 바이어스를 식서 방향으로 한다(<사진 6> 참조).



<사진 6> Hourglass S.의 bodice와 skirt 정면 draping

③ 앞 bodice의 날개 부분과 옆선과의 연결 부분은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하는데, 이 때 식서 방향은 모두 허리선에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④ 뒤 bodice는 뒤 중심선을 중심으로 옷감을 body에 맞추고 프린세스 라인을 연결한다. 이때 앞 bodice 와 마찬가지로 식서 방향은 허리선에 수직이 되도록 한다(<사진 7> 참조).



<사진 7> Hourglass S.의 bodice, skirt와 어깨끈 후면 dra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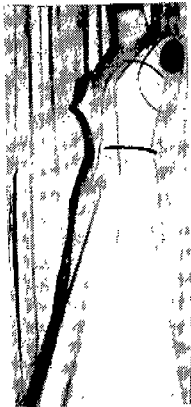
⑤ 스커트의 앞은 입어서 왼쪽에 파이핑을 넣기 위해, 절개선을 만드는데 그 절개선은 bodice의 프린세스 라인과 일치하도록 하여 디자인 원리에 어

23) S.는 silhouette의 약자임.

긋나지 않도록 한다. 앞 스커트는 앞 중심선을 식서 방향으로, flare의 위치와 분량을 고려하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스커트의 형태를 결정한다(〈사진 6〉 참조).

⑥ 뒤 스커트는 뒤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한 개씩의 맞주름을 잡고, 허리에서 옆선까지 gather를 잡아 bodice에 연결하는데 이 때 gather의 흐름을 감안하도록 한다(〈사진 7〉 참조).

⑦ 앞 스커트 왼쪽의 작은 고어드 스커트 부분은 식서 방향을 바이어스로 하여 균형 잡힌 좋은 실루엣이 유지되도록 봉합선의 완성선을 편 작업한다(〈사진 8〉 참조).



<사진 8> Hourglass S.의 gored skirt draping

⑧ 어깨선 제작시 몸판과 연결 부분엔 소량의 주름을 잡는다.

⑨ 소매는 부풀린 모양이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하는데, armhole line 뿐 아니라 팔꿈치 바로 아래 부분의 gather를 충분히 넣기 위해 여유 있게 옷감을 준비한다. 소매의 아래 부분에서부터 손목부분까지는 꼭 맞게(fitted) 하는데 이때 식서 방향은 소매 중심선에 맞춘다. 소매의 부풀림을 위해 어깨에 주름잡은 심을 달도록 한다(〈사진 9〉 참조).

⑩ Draping을 완성한다(〈사진 10〉 참조).

⑪ 완성된 pattern을 body form에서 떼어내어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잘 다림질한다.



<사진 9> Hourglass S.의 소매 draping



<사진 10> Hourglass S.의 draping 완성

⑫ 실제로 제작할 옷감에 tracing 한 후 봉제한다. 완성된 의상의 전면은 〈사진 11〉, 측면은 〈사진 12〉, 후면은 〈사진 13〉에 제시하였다.



<사진 11> Hourglass S.의 실물 정면



<사진 12> Hourglass S의 실물 측면



<사진 14> S-curve S의 기준선



<사진 13> Hourglass S의 실물 후면



<사진 15> S-curve S의 bodice 정면 draping

(2) S-curve silhouette

① 기준선은 line tape를 이용하여 정하는데, 우선 앞 neckline은 앞 목점보다 약 1cm내렸으며 뒤 목점은 basic neck line을 그대로 하였다. 허리선은 midriff 부분의 blousing을 강조하기 위해 앞 허리선보다 아래로 곡선지게 하였고, 뒤 허리선은 기본 허리선과 일치시켰다. Yoke line, 칼라의 폭, 소매둘레를 정한다(<사진 14>참조).

② 앞 yoke 부분은 중심선이 식서 방향과 일치하도록 핀 작업을 하고, 앞 bodice부분이 정 바이어스 방향이 되도록 앞 중심선에 맞추어 맞추름을 잡는다. 앞 bodice의 허리선 부분에 gather를 잡아 line tape로 설정해 놓은 허리선에 맞추는데 이때 주름의 분량을 고르게 분배한다(<사진 15> 참조).

③ 뒤 bodice yoke를 핀 작업 한 후 뒤 중심선을 식서 방향으로 뒤 몸판을 제작하는데 이 때 허리 dart를 넣어 몸에 꼭 맞게 한다(<사진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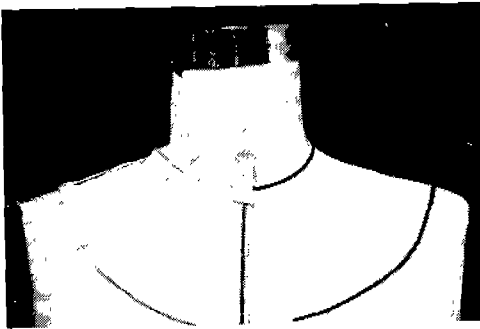


<사진 16> S-curve S의 bodice 후면 draping

④ 엉덩이를 볼록하게 하기 위해 엉덩이에 hip padding을 한 후, skirt의 앞은 2 piece, 뒤는 4 piece 인 gored skirt를 제작한다. 이 때 앞 중심선을 식서 방향으로 하고, 뒤 스커트는 프린세스 라인을 기준으로 절개선을 두며, 뒤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3개씩의 맞추름을 잡는다.

⑤ 스커트의 길이를 정한다.

⑥ Stand collar는 자연스런 곡선의 연출을 위해 바이어스로 제작하였으며, collar의 넓이는 6 cm로 설정하여 높게 하였다(〈사진 17〉 참조).



<사진 17> S-curve S.의 collar draping

⑦ 소매는 1장 짜리 tight sleeve로 제작하고 yoke에 flounce를 달아 draping을 완성한다(〈사진 18〉 참조).



<사진 18> S-curve S.의 draping 완성

⑩ 완성된 pattern을 body form에서 떼어내어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잘 다림질한다.

⑫ 실제로 제작할 옷감에 tracing 한 후 봉제한다. 완성된 의상의 전면은 〈사진 19〉, 측면은 〈사진 20〉, 후면은 〈사진 21〉에 제시하였다.



<사진 19> S-curve S.의 실물 정면



<사진 20> S-curve S.의 실물 측면



<사진 21> S-curve S.의 실물 후면

## V. PATTERN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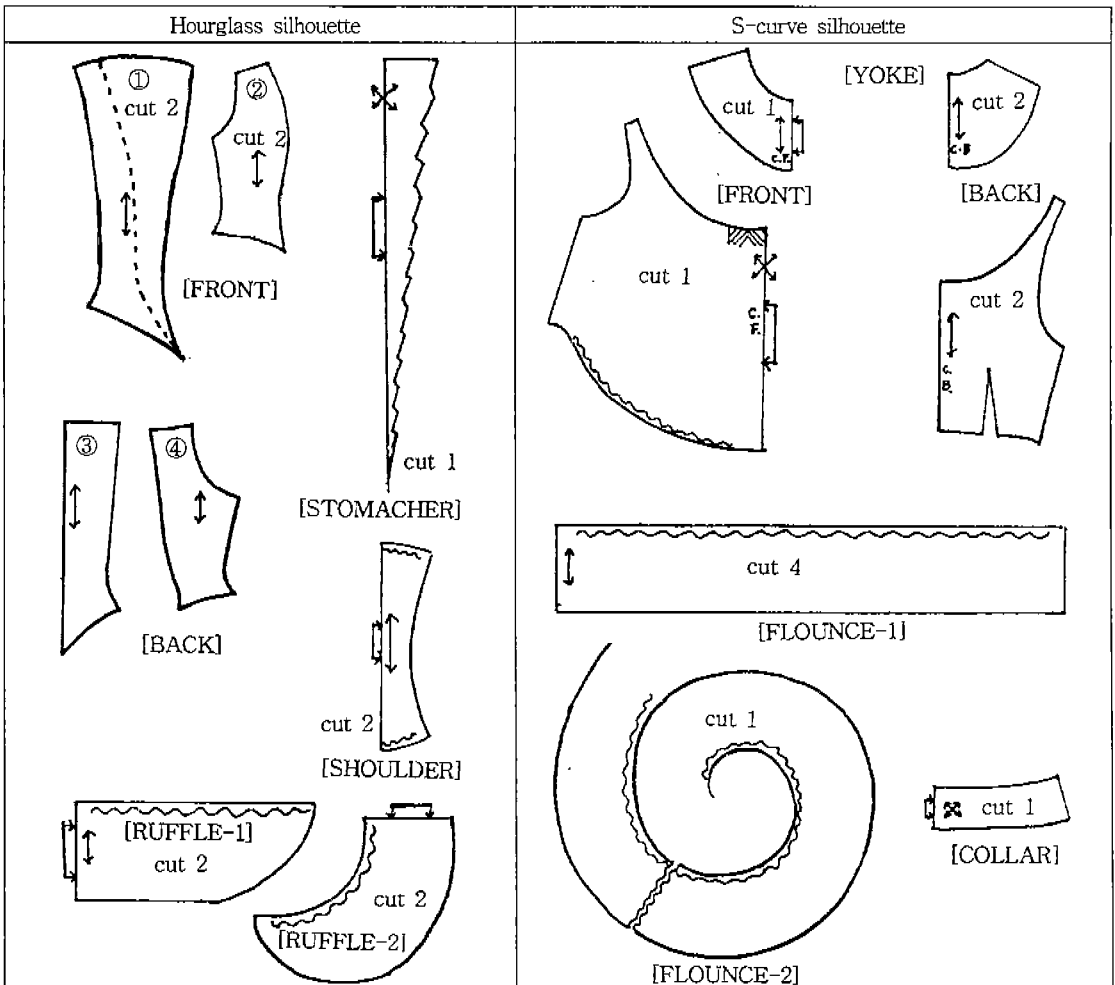
### 1. BODICE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urglass silhouette의 bodice pattern은 프린세스 라인으로 몸에 밀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 뒤 각각 4개의 piece로 구성되어 있다. [FRONT]의 piece①에서 보여지는 점선 부분은 bodice와 stomacher의 연결 부분이며, 점선을 중심으로 우측은 착장 시 꺾여 보여지는 뾰족한 삼각형의 wing 부분이다. [BACK] pattern에

서의 princess line은 허리부분으로 갈수록 뒤 중심선에 가까운 사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패턴들은 몸에 아주 꼭 맞기 때문에 직선보다는 곡선 모양의 pattern을 보이고 있고, piece ③과 ④는 piece ①과 ②에 상응하는 패턴이다.

[STOMACHER]는 앞 중심부분에 위치한 가로 주름이 있는 삼각형 부분의 패턴으로, 위 그림은 주름을 펼친 상태이다. 주름으로 인해 양 옆선이 지그재그 선으로 보이다가 하단으로 내려 갈수록 폭이 좁아져 지그재그선이 거의 직선으로 변형되었으며, 자연스러운 주름을 위해 바이어스로 재단하였다.

<표 1> BODICE PATTERN(1/10 축도, 1 scale= 2cm)



[SHOULDER]는 좌우 어깨 끈으로서 중앙의 골 선을 접은 후 골 부분은 목 쪽으로 향하고, 소매와 연결되는 부분은 곡선으로 나타났다. Bodice와의 연결 부분은 gather가 있어 중앙에서 상단과 하단으로 갈수록 점차 넓어지는 패턴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매에 장식된 러플은 표 1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재단이 가능한데, [RUFFLE 1]은 적은 량의 장방형의 옷감으로 풍성하고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나선형의 패턴이며, [RUFFLE 2]는 직물의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직물의 이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를 제시하였다.

S-curve silhouette의 bodice pattern은 앞 뒤 모두 yoke가 있는데 앞 yoke는 1장으로, 뒤 yoke는 뒤트임으로 인해 2장으로 구성되어있다 [FRONT]의 허리선은 S자형의 silhouette을 위해 풍성하게 blousing됨에 따라 옆선은 바깥쪽으로 퍼지는 사선으로 경사져 있으며, 밑단 부분은 옆 허리점 보다 훨씬 아래로 위치하는 유선형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BACK]은 허리에 밀착되기 때문에 다아트가 있으며 겨드랑이 점에서부터 허리 정까지 안쪽으로 경사져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의 형태는 현대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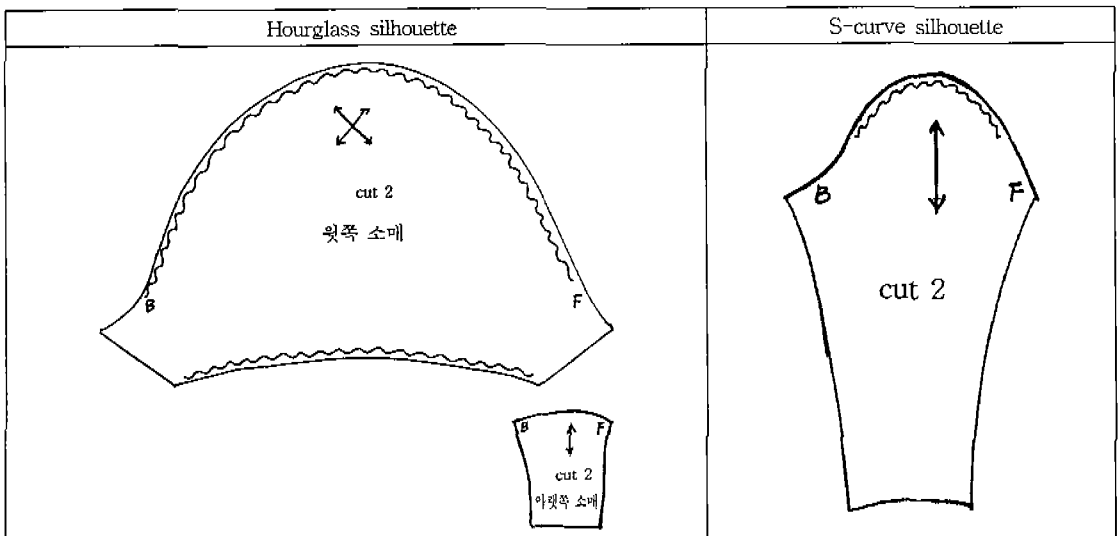
이다.

[COLLAR]의 경우는 기본 mandarin collar의 형태와 흡사하며, 요크선에 따라 붙여지는 [FLOUNCE]는 Hourglass silhouette의 소매 러플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의 재단이 가능하므로 [FLOUNCE 1]과 [FLOUNCE 2]를 모두 제시하였다.

## 2. Sleeve

Hourglass silhouette의 소매는 팔의 상단 부분이 강조된 2-pieces로 구성된 style로, <위쪽 소매> 상단과 하단에 gather가 있는 풍성한 모양이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러한 silhouette은 <위쪽 소매> pattern의 크기가 매우 넓은 형태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fit 된 <아래쪽 소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본 소매 pattern의 하단 부분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쪽 소매> pattern에서 <아래쪽 소매>와 연결되는 부분을 수정선으로 재단했을 경우엔 부풀린 소매 silhouette이 아래로 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위쪽소매> pattern의 하단 부분은 위로 향하는 완만한 곡선의 pattern으로 나타났다.

<표 2> SLEEVE PATTERN(1/10 측도, 1 scale= 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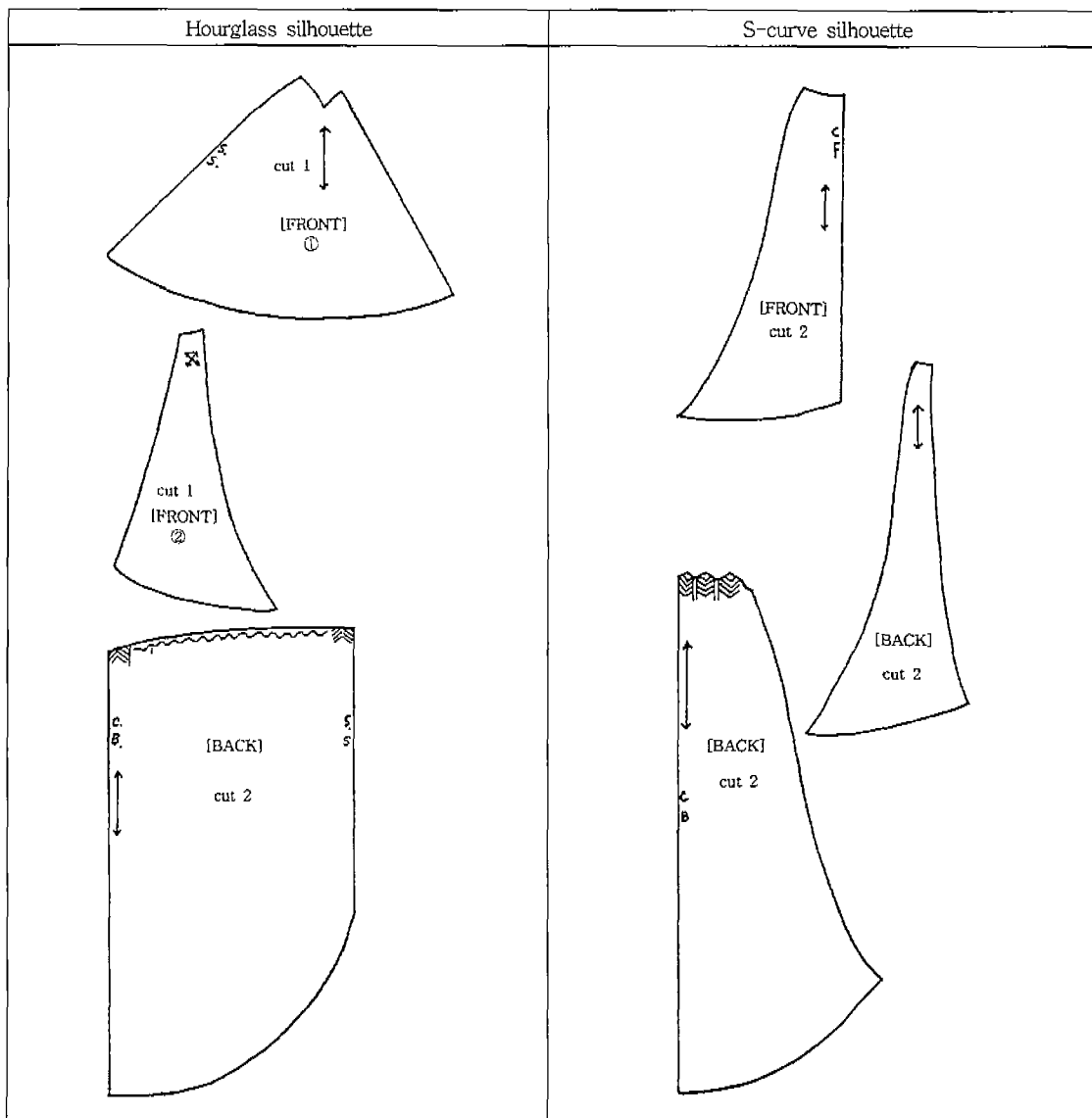
S-curve silhouette의 소매 pattern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매 pattern과 매우 흡사하다. 소매가 fit되기 때문에 좌우의 소매 옆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고 소매산이 비교적 높은 pattern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armhole line의 거드랑이 부분의 경우는 앞쪽보다 뒤쪽이 길고, 소매통의 경우에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나타나 현대의 맞춤 남자 양복 소매 pattern과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소매 단은

손목의 형태를 따라 cut했기 때문에 완만한 S자 선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 3. Skirt

Hourglass silhouette의 스커트는 앞이 치마단으로 내려올수록 퍼지고 뒤는 gather가 있어 엉덩이가 강조된 형태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3> SKIRT PATTERN (1/20 축도, 1 scale= 4cm)



[FRONT] ① pattern 은 앞쪽의 플레어지는 부분의 패턴이고 [FRONT] ②는 착장시 왼쪽 부분의 패턴으로 현대의 flared skirt와 gored skirt가 융합된 형태이다. 허리선은 bodice의 삼각형 stomacher 부분과 연결되므로 중심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났다. [BACK] 패턴의 경우는 뒤트임으로 인해 2 pieces로 구성되어 있고, 엉덩이 부분의 강조를 위한 개더는 패턴의 허리선이 위로 볼록한 완만한 곡선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스커트 치마단 선(hem line)은 뒤 중심선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패턴 모양으로 보여지는 데 이는 뒤 train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 선은 앞 스커트의 치마단 선과 어우러져지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나타났다.

S-curve silhouette의 스커트는 식서 방향을 앞 중심선으로, 2 piece로 구성된 flared skirt 형태이며, 뒤는 4 piece로 구성된 gored skirt 형태의 패턴으로 보여지고 있다. <BACK> 패턴의 경우는 Hourglass silhouette의 스커트와 마찬가지로 뒤에 train이 있어 뒤 중심선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뒤 중심선 쪽으로 향하고 있는 3개의 깊은 주름은 힙 부분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폭의 여유를 가져왔다. 이 스커트는 bell 모양의 실루엣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중심선을 제외한 다른 선들은 대부분 곡선으로 나타났고, 스커트가 연결되었을 때 hem line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곡선으로 나타났다.

## VI. 결 론

새로운 디자인의 창출은 인류가 지내 온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복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의 복식은 그의 모티브가 되어 왔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대의 한 스타일을 연구, 분석하는 일은 패션의 창조에서 꼭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입체재단법에 의한 디자인과정은 디자이너의 감각과 의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으

며 기능적이고 능률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최근 학생들 뿐 아니라 의류업계에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복식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9세기 후반 버터릭(Ebrnezer Butteric)이 처음으로 종이 패턴을 만들어 내기이전인 고대, 중세, 근세의 의상 pattern이 유물로 남아있지 않아 사진이나 그림을 통한 복식사 연구에 있어서 입체 재단법(draping design)의 활용은 불가피하며, 이는 실루엣 외에도 착장방법, 세부요소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과거 의상의 형태에 따른 패턴의 발전 및 변천 과정을 입체재단법을 이용하여 연구·분석한 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플랫 패턴의 방법에서 벗어나 각 의상의 특징을 자유롭게 표현·수정·창출 할 수 있는 입체 재단법을 이용하여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기에 유행했던 두 가지 형태의 Art Nouveau Silhouette 의상을 제작·분석하였다.

서양 복식사에 있어서 이 Art Nouveau Style은 비교적 짧은 기간(약 20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으로 실루엣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독특한 양식이다. 이러한 실루엣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패턴의 변화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Pattern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각 드레이핑 과정을 단계별(IV장의 4번)로 설명하고 실제 옷감으로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pattern 형태를 V장 <표 1>, <표 2>, <표 3>에 명시하였는데 지면상의 이유로 skirt pattern인 <표 3>은 1/20 축소(1scale: 4cm)로, 나머지 <표 1>과 <표 2>는 1/10 축소(1scale: 2cm)로 제시·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Bodice의 경우 hourglass silhouette에서는 프린세스 라인으로 몸에 밀착시켰던 것을 S-curve에서는 midriff를 blousing시키기 위한 독특한 형태의 패턴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curve에서



는 yoke를 볼 수 있는데, 이는 180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것으로 그 이전 시기에는 찾아 볼 수 없어 한층 더 발전된 패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소매 패턴에서는 2 piece에서 1 piece로, 현대 의상의 소매 모양과 매우 흡사한 모양으로 근접해 가고 있었으며, 스커트 패턴에서는 hourglass의 경우 앞에 절개선을 넣어 gored skirt의 형태를 조금 보이다가, S-curve에서는 앞과 뒤에 전형적인 gored skirt형태로 발전되어 감을 볼 수 있다. 패턴 모양의 경우에서도 hourglass의 뒤 스커트 모양은 넓은 직사각형 모양임에 비해 S-curve는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여 허리선에서 치맛단으로 내려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S-curve에서는 high neck collar와 flounce를 볼 수 있어 같은 예술사조의 초기 복식보다 후기로 갈수록 basic pattern 뿐 아니라 장식적인 부분의 패턴도 더불어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Ruffle 과 flounce는 <표 1>에서와 같이 옷감의 이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가지의 pattern 모두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르누보 스타일의 의상은 후기로 갈수록 basic pattern의 형태가 점차 단순해지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pattern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몸에 꼭 맞게 하기 위해서 princess line에서 dart를 이용하거나 혹은 소매의 경우, 2 pieces에서 1 piece의 현대 light sleeve와 매우 유사한 pattern으로 변화된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장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yoke나 flounce 등과 같은 다소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pattern으로 응용·발전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pattern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여성 의상의 재현과 공연예술 의상 제작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인 pattern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의복 구성을 통한 복식사 연구라

는 새로운 연구 방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과거 의상의 복원 제작에 있어서, 실루엣을 좌우하는 것은 속옷의 형태로서, 본 연구에서는 겉옷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속옷의 제작 과정은 또 다른 중요한 선행 연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이에 속옷의 제작 과정에 따른 구성 및 형태에 관한 연구와 고대, 중세, 근세 의상 재현을 위한 pattern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김문숙,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연구, 복식 27, 한국복식 학회, 1996. 2
- 김문숙,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연구, 복식 29, 한국복식 학회, 1996. 8
- 김문숙,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연구(Ⅱ), 복식 22, 한국복식 학회, 1994. 5
- 김정호, 90년대 (1990-1998)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 복식 46, 1999. 8
- 김효은,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복식 46, 한국복식학회, 1999. 8
- 박명희 & 임원자, 중세 서양복식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집 제 3권, 1978
- 박은희, 입체재단법에 의한 bodice의 요인구조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86
- 불량쉬페인, 복식의 역사, 까치, 1988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0
- 이영란, 입체재단, 교학연구사, 1997
- 이순홍, Silhouette의 변천에 관한 고찰, 복식 창간호
- 이정옥 외 2,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5
- 입체재단의 원리, 라사라 출판부, 1986
-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1993

- 정홍숙, 서양복식사, 교문사, 1999
- 정홍숙, 아르누보 양식이 현대 의상에 미친 영향, 복식 제 3호, 한국복식학회 1981. 2
- 丹野, 이희현 역, 서양복식사, 경춘사
- Thomas, Bevery Jane, 「A Practical Approach to Costume Design and Construction」, 1982
- Bradely, Carolyn G, 「Western World Costume」, Prentice-Hall, Inc., New Jersey.
- Cunnington, C. Willett &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ub. New York, 1992
- Cunnington, C. Willett &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London & Boston, 1981.
- Ewing, Elizabeth,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B. T. Bastsford ltd, Lomdon, 1993
- Hilde Jaffe & Nurie Relis, 「Draping for Design」, FIT, 1973.
- Arnold, Janet, 「A Handbook of Costume」, Mac Milan, 1973.
- Arnold, Janet, 「Patterns of fashion 2」, Drama Books Specialists, New York, 1980.
- Laver, James,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1985
- Nunn, Joa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Scocken Book. New York, 1984.
- Hamilton, Margot & Bucknell, Peter A., 「The Evolution of Fashion: Pattern and cut from 1066 to 1930」, Drama book Publishers, New York, 1968.
- Wilcox, R. Turner, 「The Mode in Costume」, 1958